

안녕하십니까?

저는 4학년 2반 박은후의 엄마 정은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운영위원회가 더욱
확성화 되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된다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가 처음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운영 위원으로 뽑아 주신다면 항상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우리 아이들이 다닐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합니다.

소중한 헌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